

'세월호 인양 고의지연' 보도 논란 文-安측 신경전 '확산'

심상정을 잡아라

文측, '청년 표심' 사로잡기

文측 "가짜 뉴스... 법적 책임 물을 것" · 安측 "언론 통제"로 규정 민주당 송영길 · 박주민 의원 등 SBS 본사 항의 방문 사과보도 요구 해수부, "인양 지연 원인은 기술적 문제... 모든 법적 수단 동원할 것"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측은 3일 한 언론사가 세월호 인양 고의지연 의혹을 보도한 데 이어 이후 이 기사가 삭제된 것과 관련, '보도 진위', '언론통제' 등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SBS는 2일 익명의 해수부 공무원의 발언을 인용해 해수부가 정권 창출 전 세월호를 인양해 문 후보에 유리한 사회 분위기를 형성, 문 후보가 약속한 수산 분야 제2차관 신설, 해양경찰 편입 부처 숙원을 이루려 했다고 보도했다.

방송 직후 양측은 보도의 진위를 두고 1라운드 대결을 펼쳤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세월호의 슬픔을 철저히 자기 선거에 이용하는 문 후보에게 국민을 위한 대통령을 기대할 수 없다.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지금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 등을 언급하며 공세에 나섰다.

문 후보 측은 '가짜 뉴스'라고 규정하며, SBS와 해당 공무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광온 공보단장은 논평에서 "문 후보는 세월호 참사 당시부터 유기족과 희생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며 "문 후보와 민주당 선대위는 해수부 2차관 신설을

약속 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이후 SBS가 3일 오전 "기사의 원래 취지는 정치권 상황에 따라 변화해온 해수부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보도 내용에 충실히 의도를 담지 못해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해당 기사를 삭제하자 국민의당이 이를 '언론 통제'로 규정하며 논란은 2라운드로 번졌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겸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후보 측

에서 고발을 운운하고, 결국 기사가 삭제됐다"며 "별써 진실을 감추고 반대자에 대한 보복과 언론 통제로 맞서려 한다면 나중엔 어떻게 끔찍하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 유은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 대표는 오늘 아침 들은 SBS의 기사 삭제와 사과보도가 문 후보 측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악의적인 주장을 하고 나섰다"며 "새정치를 앞세웠던 신성 정당답지 않게

너무 구태 정치에 쩌든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유 수석대변인은 "박 대표와 국민의당은 국민의 수준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다"며 "허위 보도에 편승해 세월호를 선거에 이용하는 저열한 행태는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편 문 후보 측 송영길 선대위 총괄본부장, 손혜원 의원, 박주민 의원, 황희 의원은 이날 낮 12시에 SBS 본사를 항의 방문해 보도본부장을 만나 사과보도를 요구했다.

이어 해양수산부는 SBS의 보도에 대해 인양이 지연된 이유는 "기술적인 문제"라고 강조,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허위 보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



선거유세를 위해 3일 익산역을 방문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시민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미래프로젝트 가동, 전북 뭍 찾을 것"

안철수 후보, 익산역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구축 등 공약 제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전북 발전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고 나섰다.

안철수 후보는 3일 익산역 광장에서 가진 선거유세에서 "대통령이 되면 미래프로젝트를 가동해 전북의 뭍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안 후보는 먼저 새만금에 사회간접자본(SOC)을 구축해 4차 미래혁명 전진기지로 삼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아울러 새만금 국제공항을 조성하고 항

공정비단지를 만들어 전북의 미래를 견인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안 후보는 또 전북에 글로벌 탄소밸리를 조성하고 전북과학기술원을 설립하는 등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할 방침임을 역설했다.

전주와 완주에 건설된 혁신도시를 전북 발전을 위한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피력한 안 후보는 국제금융센터 건설, 서해안 금융허브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

냈다.

특히 익산시 동북아 식품수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스마트팜과 민간 육종연구단지 조성을 약속했다.

안 후보는 국립철도박물관이 익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뜻을 내비치며 백제역사문화벨트를 조성해 전통과 문화가 특화된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공언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당선되면 무능·부패 정부가 될 것이라고 비판한 안 후보는 "투표용지는 총알보다 강하다. 투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전진시킨다"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뉴스

대학교수 320명 · 한국노총, 文 지지

2일 전북지역 9개 대학 320명의 교수들과 한국노총 전북본부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나섰다.

전북대 신형식 교수 등 도내 대학 교수들은 이날 도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우리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를 가능케 할 정치인은 문재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후보의 낯다른 전북 사랑에 대해서도 신뢰한다"며 "그는 전북의 소외감을 이해할뿐더러 어떻게 해야 전북 사람들이 잘 살 수 있을 지에 대해 진심으로 고민하는 정치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노총 전북본부도 이날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후보가 꼭 당선될 수 있도록 전조지적인 당선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지지 후보를 결정했다"며 "이번 결정은 문재인 후보의 당선과 노동자 서민의 삶을 바꾸는 변화의 출발점이 되리라는 점을 굳게 확신한다"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

정운천, "지역 의견 수렴 후 탈당 결정"

비른정당 국회의원의 14명이 집단 탈당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 중 정운천 의원이 5일 탈당을 결정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일 정 의원은 "지역구의 의견을 수렴한 뒤 한국당 부당과 무소속 신분들 중에서 최종 판단을 내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호남에서 유일하게 바른정당 소속인 내가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마땅한 명분이 없기 때문에 관망하고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며 탈당 유보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탈당 및 홍 후보에 대한 지지 여부 고심은 오로지 전북 발전이라는 명제를 위해 하고 있는 것"이라며 "중앙과의 막힘 통로를 열겠다고 도민들과 약속한 이상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여당의 불모지인 전북에서 세 번째 도전 끝에 지난해 4월 전주시 을에서 당선됐으며, 지난 12월 28일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인재용 기자



국립세종대 유네스코 음식향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